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6월 27일(주일) 제1350호



임재, 거룩, 부르심, 선교, 파송!

청년세대 부흥, 예배, 선교 회복 위한 '2021 카운트다운!'
7월 5일부터 9일까지 오후 8시 양재 사랑홀, 유튜브 참석

청년세대의 영적 부흥과 예배, 선교 회복을 위한 컨퍼런스 '2021 카운트다운'이 7월 5일(월) 오후 8시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2021 카운트다운은 7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임재', '거룩', '부르심', '선교', '파송'을 주제로 이어진다. 5일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 '임재', 6일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거룩', 7일 박지범 선교사(LAMP지도목사) '부르심', 8일 권성찬 선교사(GMF대표) '선교', 9일 이재훈 담임목사 '파송'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한다. 찬양인도는 한성워십, 홀

리임팩트, 아이자야 씽크티원이 한다. 특별게스트도 있다. 5일 히즈웰(CCM 혼성그룹), 7일 함부영 간사(플레이트 찬양 인도자)가 공연한다. 9일에는 선교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선교헌신의 시간'을 갖는다.

7월 1일(목) 오후 8시에는 온라인(Zoom)으로 중보기도모임을 한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리더십, 카운트다운 중보기도팀, 함께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또한 2021 카운트다운 인증사진 촬영, 5행시 짓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카운트다운 포스터 또는 배너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카

운트다운'으로 5행시를 지어서 '2021 카운트다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면 된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장)는 "카운트다운은 청년들의 예배 회복과 선교의 부흥을 위해 준비된 예배"라면서 "이번 카운트다운에 참석해서 코로나19 시대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청년들을 위한 예배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문의: 02-570-7532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2021 마리아행전 '일어나 함께 가자'

2021 마리아행전이 끝났다. '일어나 함께 가자'를 주제로 2천여 명의 마리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1,900여 명이 참석했다.

조호영 목사는 "하나님께 매일 사랑을 고백할 때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기성 목사는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요나단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교했다.

이희인 집사(신용산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현주 기자

여름 아웃리치 이렇게 진행됩니다!

온·오프라인, VR 체험관 운영

올해 여름 아웃리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VR선교체험관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아웃리치는 공동체 종강예배에 결연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한다. 이어서 각 다락방 결연 선교사들이 사역지를 소개하고 성도들이 선교사를 위로하는 온라인 아웃리치가 진행된다. 오프라인 아웃리치는 대상 교회 및 단체의 요청에 따라 다락방 단위로 실시한다.

VR 체험관은 선교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도구다. 7월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운영된다. 주중에는 공동체 단위로 사전예약해야 하고, 주말에는 성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 창립 9주년

양지 온누리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6월 26일(토) 오전 9시, 6월 27일(주일) 오전 9시, 11시 30분 본당(2층 김사무엘홀)에서 드린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2012년 '열방을 품은 전원교회'를 꿈꾸며 국내 9번째 캠퍼스로 탄생했다. Acts20비전빌리지 완공과 함께 마을에 있던 베엘교회의 명칭을 양지 온누리교회로 변경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온누리선교훈련센터와 함께 열방을 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도육환 목사(양지캠퍼스 담당)는 "양지 온누리교회는 선교의 영성과 비전의 산실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달려라! 풍당’ 씬 없이 달렸다!

2,779명 참가, 1억 7천만 원 후원

CGNTV를 위한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 (이하 달려라!풍당)이 종료됐다. 지난 한 달 동안 달려라! 풍당은 씬 없이 달렸다. 참가자 2,779명이 9만9천km를 달리고(6월 25일 집계 기준), 1억 7천만 원을 후원했다. '1억 후원, 1천 2백 명' 목표를 가뿐하게 달성했다.

김진희 성도(전주대학교교회)는 어머니 구선례 어르신과 '달려라! 풍당'에 참가했다. 구선례 어르신은 재할 치료를 위해 전동자전거를 타면서 다음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다.

김진희 성도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다양한 키즈 콘텐츠를 꼭 제작해달라"고 부탁했다. 최광식 성도(분당B공동체)는 아

들 최지훈 형제의 제안으로 '달려라! 풍당'에 참가했다. 최광식 성도는 "자기 용돈으로 CGNTV를 후원하겠다는 아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면서 "다음세대와 부모세대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월 24일에는 달려라! 풍당 시상식이 있었다. 최고거리상은 1,298km를 달린 박성일 성도, 최고 후원상은 김상훈 목사(윤정희 사모), 함께 후원상은 김두진 팀, 고광은 팀, 김윤진 팀이 수상했다. 후원금 전액은 기독교 OTT 풍당 키즈 콘텐츠 제작 및 허입에 사용된다.

후원계좌: 573-910001-56604 (재)온누리선교재단

문의: 02-796-224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자녀 교육 Q&A

자녀와 신앙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교회 가기 싫다고 떼쓰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자가 초등학교생이었을 때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는 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 당시 주일 아침 9시만 되면 모든 초등학교생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TV에서 보여주었다. 나 역시 그 만화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다. 하지만 목사님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무조건 주일학교에 가야 했다.

요즘은 TV에서 만화영화를 한다고 교회 안 가는 초등학교생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늦잠, 학업, 게임 등으로 인하여 주일 아침 교회 가는 것을 주저하는 아동들은 많을 것이다. 심방을 다니다 보면 의외로 초등학교생 자녀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주일날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자녀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 게다가 ‘왜 교회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던지는 등 신앙에 대한 갈등으로 부모님과 부딪히는 자녀들이 많다. 이럴 때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

먼저 부모의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모습이 중요하다. 자녀에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부모의 편익에 따라 예배 출석을 취사선택한다면 자녀에게 신앙은 선택의 요소로 인식될 것이다. 예를 들어 주일날 무조

건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해놓고 자녀가 시험을 보거나 학업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자녀가 속으로 ‘교회는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둘째, 평소 부모와 자녀관계가 중요하다. 나의 경험을 돌아켜 보면 내가 주일날 만화영화를 포기하고 교회에 간 데에는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모님이 인격적이고 따뜻한 분이셨기 때문이다.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게도 좋은 분이셨다. 대상관계심리학자들은 아동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학령기 자녀들이 성인들처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님이 좋아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가고, 교회에 가다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교회 출석을 강하게 거부한다면 평소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자녀가 교회와 신앙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때 부모가 너무 놀라거나 화를 내면 안 된다. 자녀들이 신앙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이나 회의감을 표현할

때 오히려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태도가 중요하다. 설득은 금물이다. 어떤 질문에도 부모가 당황하지 말고 따뜻하게 반응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자녀들이 수용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면화 한다.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리자이다.

넷째, 주일날이 자녀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도 보낸다면 자녀에게 주일은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이다. 신앙은 강요로 되지 않는다. 부모의 삶과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신 것처럼 자녀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품어 줄 때 자녀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것이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서빙고 상담실 담당)



1. 세살 버릇 여든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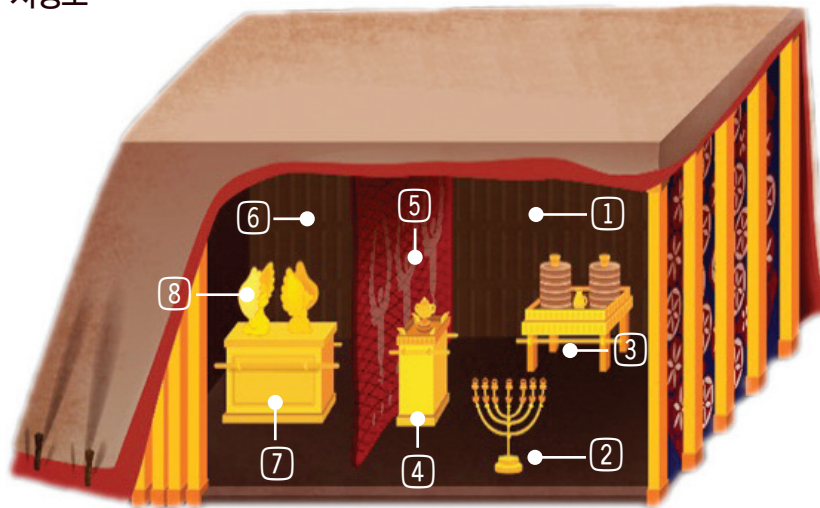
‘하나님, 안녕하세요!’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가족, 친구와 함께 신앙적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우리들 작품



〈고민〉 박하진 학생(양재 꿈땅 소년2부)

성경, 알고싶어요 ‘성소와 지성소’



위의 ‘성소와 지성소’ 그림을 보고 아래 빈칸을 채워주세요.

- 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예요. 휘장을 사이에 두고 지성소와 구분되어 있어요.
- ②
성소를 밝히는 데 사용되었어요. 7개의 불꽃이 언제나 성막 안을 환하게 했어요.
- ③
진설병이라는 떡을 올려놓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6개씩 2줄로 12개의 진설병을 올려두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 ④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서 매일 아침, 저녁 두 번씩 향기로운 향을 태웠어요.
- 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천막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 ⑥
오직 대제사장만 일 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 ⑦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 ⑧
언약궤의 덮개예요. 덮개 위에는 두 그룹(천사)이 서로 마주보는 형상이 있어요.

힌트: https://youtu.be/U_L_a89APJI

*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정답을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가 다른 예언서와 다른 점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예언의 내용이 주어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고, 이해는 질문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믿음이 없기에 기대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실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만, 그 실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불의한 악이 횡행하고, 불법적인 지도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악한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백성의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받아들이 수 있었지만,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바벨론이 훨씬 악하고 잔인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유다 백성보다 악한 민족일 수 있습니까?”

선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개혁을 일으키고, 세상을 순화시키는 응답이었다면 하박국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흐름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하박국 2장입니다.

악행 안에 멸망의 씨앗이 들어 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함을 열거하시고 그 악함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진 저주와 심판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너무 단순한 사실이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박국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체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어떤 악을 행했고, 그들에게 어떤 벌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의 오해가 풀렸을 것입니다. 의문이 풀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실제 삶에서 믿음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만 믿고 살아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행을 열거하시는 말씀의 내용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악행 안에 멸망의 씨앗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거두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악행을 벌하십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갈 6:7-8).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가능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저주와 심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 다섯 가지 저주와 심판을 말씀합니다. 6절, 9절, 12절, 15절, 19절을 보면 ‘화 있을 것’이라는 단어로 예언합니다. ‘화 있을 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호이’라는 감탄사입니다. 장례식에서 죽음에 대한 슬픔의 탄식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탄식의 언어, 슬픔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해서 멸망 받아 마땅한 이들을 심판하실 때도 탄식하십니다. 우리는 악을 많이 행하는 자가 망했거나 역사의 심판을 받으면 박수하며 환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의 멸망에도 슬퍼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저주의 내용은 ‘바벨론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심판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5-6절).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탐욕을 만족시키는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악한 고리대금업자가 빌려준 돈에 대하여 부채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해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하는 모습처럼, 바벨론이 이웃 나라에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강포로 짓밟고 끝없이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저주의 내용은 ‘거짓된 안전에 대한 심판’입니다.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적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동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네 집안에 수치를 불렀고 네 영혼에 죄가 됐다”(9-10절).

거짓된 안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폭력과 강포로 제물과 권력을 취한 이들은 불안합니다. 누군가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지나친 의식을 갖습니다. 악한 독재자일수록 이러한 위험을 두려워하고, 경호와 치안을 최고로 여깁니다. 어디에서 자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게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고 높은 곳에 동지를 틀든 특수처럼 자신의 동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시대에 세 개의 궁전을 지었는데 그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인공산을 만들어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매달려 있는 정원’이라고 부르는 불가사의한 정원을 만들고, 자신의 집을 그곳에 두어서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권력과 힘으로 안전을 추구해도 거짓된 안전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안전을 추구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불의한 권력과 부정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 줄 피난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스스로 만든 지도자들의 안전처도 심판하십니다.

헛된 영광에 대한 심판

세 번째 저주의 내용은 ‘헛된 영광에 대한 심판’입니다.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 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할 것이다”(12-14절).

헛된 영광을 취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힘과 폭력으로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 그들이 피를 흘리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명을 경시당하는 모습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100년이 지나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바벨론을 방문했을 때 그 규모와 화려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대왕도 바벨론을 자신이 세운 제국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벽 위로 말 네 마리가 끄는 마차가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로로 잡아온 이들의 피 값으로 세운 성이었습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 영광을 얻으려는 모든 행동을 심판하십니다. 그 헛된 영광에 대해 심판하시면서 여호와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와 영광을 아는 지식만이 세상을 가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물이 바다 덮음 같이’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바다가 바다로 여겨지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바다라고 불리는 모든 곳은 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 세상이 참된 세상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때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에 가득 차야 바다일 수 있듯이,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물 없는 바다는 바다일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 인간은 인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이 세상일 수 없습니다.

〈14면에 계속〉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기독교 세계관이 믿음을 변호한다!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변호하는데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이 너무 학문적이고, 현학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통한 기독교 변호보다 전도에 힘쓰

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을 들어봤거나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포스트기독교 사회에서는 전도할 때 강한 반발과 공격적인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변호가 먼저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과 세계관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에 의해 각각 재건된 성전과 성벽의 관계와 유사하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에 의해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지만 귀환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재건을 의미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고 반세기 이상이 지났음에도 예루살렘은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으로 인해 성안의 백성들과 성전을 외적으로부터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느헤미야서가 시작한다. 이처럼 기독교 세계

관의 성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성전과 같은 신앙은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고 무너지기 쉽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다른 세계관으로부터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나름 공부해서 방어하려고 노력하지만, 스스로 무지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신앙을 공격해 오는 상대에 대해 자연히 뒷걸음치게 되고 방어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느 1:3).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전해 들은 예루살렘의 소식이 지금 내 형편과 같지 않은가? 나의 경우에도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50대 중반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때야 세계관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세계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전략이 필요하고, 느헤미야가 좋은 모델임을 깨달았다. 귀환한 유대인들은 초라하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의 인도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시작한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은 그들의 성전을 지켜줄 수 없는 상태였다.

느헤미야는 첫째, 현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했다.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지 못하는 내 세계관의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완전하지 못하지만 속전속결로 성벽재건을 마치는 것이다. 취약점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 셋째, 철저한 분업이 필요하다. 각자 자신의 집 가까이 성벽을 복구하였다. 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세속 세계관의 거짓을 분별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그 지식과 믿음을 전파해서 서로 보완하는 것이다. 비록 크지 않더라도 성벽이 완성되면 넷째, 외부세력의 유입을 분별해서 수용할 수 있고, 내부의 오염된 세력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세계관을 정립하는 과정 중에 내가 세우고 있는 세계관의 연약함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고 있던 성벽에 대해 그 대적들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세계관이 형편없고 연약함을 놀릴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성벽 쌓기를 방해하려는 대적들의 계략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들은 놀라고 당황하는 것이다.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을 닫으면 누구도 성전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의 변증이란 무죄인 데도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합리적 변호이고, 최후의 날까지 그 변증은 멈출 수 없

다. 우리가 변호하는 분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써 변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 기니스는 “변증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기독교의 변증이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다윗과 엘리아처럼 나도 이 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변증에는 이기고 청중을 잃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리인 것은 변증의 성공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이 진리라면 아무도 믿지 않아도 진리이고, 진리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믿어도 진리가 아니다.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최고의 변증자이고, 우리는 보조자이며, 증인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변증은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피고석에 계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명확하게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세상 헛된 이념의 선전이 거짓된 것임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다.

묵상: 변증에는 이겼는데 복음 전파에는 실패한 적이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정보의 본질로 살펴본 ‘창조세계관’

“개는 왜 고양이를 낳을 수 없는가?”

개는 왜 고양이를 낳을 수 없는가? 이 질문의 답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질문의 도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모습과 크기를 가진 개들이 존재한다. 모습, 크기, 털 색깔이 아무리 다양해도 우리는 그 개가 고양이గా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다양한 모습의 개들은 교배를 통해 고양이와 아닌 강아지만을 끊임없이 낳는다.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깨닫게 된다. 두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개와 고양이는 완전히 다른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는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나는가? 정보는 추상적인 의미여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불확실성의 해결’이라는 정의가 정보의 본질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을 만나고, 그 신호가 빨간색일 때 멈추라는 중요한 정보를 받는다.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는 안전한 상황이므로 운전해도 좋다는 정보를 받는다. 신호등의 경우는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 정보를 색깔을 통해 주고받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운

전하다가 신호등을 발견했는데 그 색의 조합이 보라, 흰색, 검정으로 변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떠한 정보도 파악할 수 없어서 우왕좌왕하면서 교통사고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신호등의 빨간색을 ‘멈춤’이라는 의미로 약속하면서 이 색깔이 정보 기능을 하게 되고, 사회는 이 규칙을 준수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정보는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과 규칙이 있어야 비로소 정보로 사용된다. 이러한 약속과 규칙을 내포하는 정보는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 정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색깔 이외에도 반드시 물질을 통해서 전달된다. 소리, 빛, 전류, 숫자, 연기(조선 시대 봉화의 경우) 등 수많은 물질이 정보의 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

생명체는 모든 정보를 DNA라는 물질에 담아 다음 세대로 전달한다. 개의 DNA 안에는 그 생명체 고유의 특성이 유전정보 형태로 들어 있고, 이 DNA가 다음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개는 고양이를 낳을 수 없고, 개와 고양이는 서로 교배할 수도 없다.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정보는 사

회 구성원 간 약속을 토대로 정해진다. 그렇다면 DNA 속에 들어 있는 유전정보에 관한 약속과 규칙은 누가 정하였는가? 진화론은 초자연적인 창조주 존재를 부정하며 생명체 발생을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 물질에 포함된 정보 또한 우연히 발생해야만 한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생명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해왔고, 생명에 관한 막대한 연구 결과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도 과학이 직면하고 있는 아이러니는 생명에 관해 새로운 지식이 쌓여갈수록, 생명에 관해 모르는 부분이 폭발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 과학은 간단한 단세포 생명체라도 그 안에 들어 있는 물질의 복잡성과 유전 정보량은 우주와 같이 방대하고, 유전정보의 규칙성은 놀랍도록 정교함을 알려주고 있다. 과학자들은 연구 과정을 통해 DNA 속에 들어 있는 유전정보를 조금씩 알아가는 작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언제 어떻게 유전정보의 약속과 규칙이 DNA에 들어가 있는지는 단서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물질의 세계를 다루는 과학이 접근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도 하다. 생명의 기원과 정보의 본질을 우연의 결과라고 바라보는 진화론이 얼마나 불합리한 시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정교한 DNA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유전정보의 약속과 규칙을 세울 수 있는 분이다. 현대 생명과학은 모든 사람은 공통 유전정보도 가지고 있지만, 각자 고유의 독특한 유전정보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나의 고유한 DNA를 통해 나만을 위한 약속을 세우고 계신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이다. 나를 그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하주현 장로
(이촌공동체,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교회와 성도의 역할 가정문제에 대하여

“용서와 화해, 신뢰가 해법입니다”

김성묵 장로, 한은경 권사에게 듣는 가정문제 원인과 해법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사회의 취약점이 참 많이 드러났다. 가정문제도 마찬가지다. 깨지고, 금 간 가정이 많은 줄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가정의 위기는 결혼율과 출산율 감소, 남녀갈등 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그 짐을 청년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성묵 장로(두란노아버지학교, 이하 ‘김’)와 한은경 권사(두란노어머니학교, 이하 ‘한’)에게 가정문제의 원인과 그 해법을 물었다. 김성묵 장로와 한은경 권사는 한목소리로 “이 시대 문제 대부분이 가정이 무너진 사회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교회는 가정 중심적인 목회를 하고, 성도들은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묵 장로, 한은경 권사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되어서는 왜 함께 있으면 싸우는 겁니까?

“한: 건강한 가정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사이가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정반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갈등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어서 정말 많이 싸우고 다툰습니다. 우리 모두 이기적인 죄인이고,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향하는 과정입니다. 갈등 없는 관계는 죽은 관계입니다.”

“김: 저는 부부간의 갈등을 ‘무식해서 단순한 걸 가지고 복잡하게 싸운다’고 표현합니다. 아무렇게 벗어두는 양말과 옷가지, 반찬 때문에 정말 복잡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모르고, 아내를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서로에게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까?

“김: 일단 결혼하면 남자가 아닌 남편이 되고, 여자가 아닌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채워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흔들리거나 깨어집니다. ‘관계방정식’을 서로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접근과 반응으로 이루어지며 그 공간에 감정이 있다는 것, 사람은 대부분 감정에 따라 반응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분 좋은 접근은 상대방의 감정을 좋게 만들어 좋은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덩이에서 무화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자극을 주고 좋은 반응을 하는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한: 때로는 좋은 자극을 줬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별일 아닌데 열이 확 올라서 쏘아붙였던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 욕구와 상황의 영향도 있지만, 원가족의 영향이



**“온 가족을 위한 예배와 양육,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는 자기 자리에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됩니다. 부모와 가족에게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원가족에게 받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그 대물림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 제가 아버지학교에서 들은 어느 아버지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아내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가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별칭계 달아올라 구겨진 제 얼굴이 보이는데 절대로 닮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심만 하고 다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과 배움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김: 아버지학교를 하면서 만난 한 아이의 편지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엄마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빠를 저주하는 편지였습니다. 눈앞에 아빠가 있다면 불펜으로 찔러 죽이고 싶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사실은 그 아이들의 아빠들도 깨진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아이들이 커서 그토록 미워하는 부모를 닮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잘못된 대물림의 고리를 끊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 요즘은 아이들과 자유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질서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김: 지시, 지도, 지지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어린이에게는 지시해주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지도해주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지지해주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혼율과 출산율 감소, 남녀갈등 등이 심합니다.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김: 사회, 교회, 학교, 가정, 모두가 책임을 가

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깨진 가정을 경험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남녀로 나뉘어 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싶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대물림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청년들은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품어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사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한: 수백 년 동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참고 살다가 더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깨진 가정에서는 여전히 서로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녀가 서로 다른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용서는 일방적이라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 중심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온 가족을 위한 예배와 양육,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리에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가정사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키는 가정선교, 즉 수직선교가 회복되고, 수직선교가 회복될 때, 땅끝까지 가는 수평선교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한: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선교해라, 일해라, 사역해라, 싸워서 승리하라고만 가르쳤습니다. 주일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분노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가정목회와 가정사역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역과 예배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신뢰를 쌓는 교회적인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땅끝은 우리의 가정일지도 모릅니다.”

도전하는 청년 응원 프로젝트

음악으로 마음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소리 김임춘 부부, 장진영 자매의 공통점 (인디밴드 '러브 레시피') (칼림바 전도사)

경기불황, 좁은 취업문, 설상가상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가득이나 우울한 청년들의 앞날에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다. '도전하는 청년 응원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 젊음과 패기로 끝까지 도전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응원하는 코너이다. 그 두 번째, 세번째 주인공은 인디밴드 '러브 레시피(Love Recipe)' 이소리, 김임춘 부부(SNS청년부)와 국내 1호 칼림바 연주자 장진영 자매(W청년부)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달달함이 느껴졌다. 풋풋함도 보였다. 순수함이 전해졌다. 꾸밈없는 노래처럼 꾸밈없는 모습이 인상적인 인디밴드 '러브 레시피' 이소리, 김임춘 부부의 첫인상이다.

이소리, 김임춘 부부가 인디밴드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

“자극적인 가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끝까지 선한 음악을 하고 싶은 게 저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속삭여주고 싶어 하시는 달달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선한 음악, 거짓 없는 노래 빛과 소금이 되는 인디밴드

이소리, 김임춘 부부(SNS청년부)가 인디밴드를 결성하게 된 사연이 재밌다. 이소리 자매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를 남편이 듣고 혼자 듣기 너무 아깝다면서 인디밴드를 결성했다.

“제 습작(習作)을 누구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다가 남편에게 딱 한 번 들려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고 인디밴드 활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가 2017년이였다. 그런데 첫 앨범을 발매하기까지 3년이나 걸렸다.

“음악 작업을 열심히 하면서 음반이 발매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좌절도 하고 실망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재정 상황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앨범을 못 내고 있었다. 그래서 첫 앨범을 발매하기까지 3년이나 걸렸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다.

“뮤직비디오 촬영, 스튜디오 녹음, 마음 맞는 연주자들을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앨범도 만들고, 뮤직비디오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인디밴드 러브 레시피는 지금까지 3개의 싱글 앨범을 발매했다. 대표곡은 ‘듣고 싶은 말’, ‘나의 빛’, ‘사랑하는 너에게 실망한다는 건’이다. 노래 제목과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보다 복음적인 노래가 없다. ‘듣고 싶은 말’은 실의에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넌 잘하고 있어’를 건네면서 위로와 용기를 선물하는 노래이다. ‘나의 빛’은 각박한 세상에서 진정한 빛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변에 있는 빛을 살펴보고 권면하는 노래이다. ‘사랑하는 너에게 실망한다는 건’은 ‘가족, 친구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왜 그들에게 실망하게 될까’라는 의문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다.

“‘듣고 싶은 말’이라는 노래는 힘들어하는 남동생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남동생이 일하다가 한쪽 눈을 다쳤거든요. 다들 그 상태로 어떻게 사나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남동생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서 실의에 빠졌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충분히 괜찮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너에게 실망한다는 건’이라는 노래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노래입니다.”

러브 레시피의 진심이 통했다. 이소리 자매의 남동생이 그 힘든 시기를 누나가 만든 노래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다고 고백한다.

“저희가 만든 노래를 듣고 큰 힘이 된다. 위로 받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노래 만들기를 참 좋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만든 음악을 듣고 단 한 사람이

라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친 하루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공감, 힘이 될 수 있는 음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한 음악, 거짓 없는 노래, 빛과 소금이 되는 인디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러브레시피 유튜브 채널: '러브 레시피 룸(Love Recipe Room)'



국내 1호 '칼림바' 전도사 장진영 자매

하프 소리 같기도 하고,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영롱한 음악 같기도 하다. 모습도 신비롭다. 손바닥 두 개 합친 것 같은 나무판에 17개의 금속 막대기(건반)가 대칭 구조로 달려있다. 힐링 악기, 집콕 악기, 반려 악기, 엄지 피아노, 손가락 하프, 악마의 악기 등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다. 이 악기는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건반을 통기둥 연주하는 '칼림바(Kalimba)'다.

장진영 자매(W청년부)는 첼로 연주자다. 그런 그녀가 이 생소한 악기 칼림바를 알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칼림바 협회(한국칼림바음악교육협회)를 만들기도 했다. 칼림바 지도사 민간자격증 국내 1호 발급 기관이다. 칼림바 전용 교재를 처음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칼림바코리아'도 만들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칼림바 1호 전도사인 셈이다.

그녀는 칼림바를 접하자마자 매료됐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여러 악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더 쉽고 재미있는 새로운 악기를 찾다가 우연히 칼림바 연주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온몸에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악기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지 찾아봤다. 그런데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국내에서 칼림바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고, 책(교재)도 없고, 자격증도 없더라고요. ‘이 좋은 악기가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국내 1호 칼림바협회 ‘한국칼림바음악교육협회’가 탄생했다. 장진영 자매는 그다음 일도 속전속결로 해나갔다. 사실 그 모든 과정이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았다.

“칼림바 강사를 양성하려면 커리큘럼과 교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지만 사보 프로그램을 독학하며 직접 칼림바 기초곡집과 연주곡집을 만들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커리큘럼, 자격증)도 만들었고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본격적으로 활동할 일만 남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다. 여기서 반전이 있다. 코로나19 시국이 오히려 칼림바의 장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칼림바는 입으로 부는 악기가 아니라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예요. 또 기본 연주법 자체가 워낙 쉽고, 좌우대칭이라 온라인 화상수업을 하기에 최적화된 악기입니다.”

장진영 자매가 수줍지만 강단있게 포부를 밝혔다.

“칼림바는 아프리카 토착민들이 종교의식에서 조상과의 영적 교류를 위해 사용한 악기라서 ‘악마의 악기’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저는 칼림바가 더 이상 악마의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림바의 울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매개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악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곧 실현된다. 장진영 자매가 〈엄지피아노 칼림바 찬송가 연주곡집〉을 출판한다. 그녀는 지금 칼림바로 찬양을 가르치고, 칼림바로 찬양을 연주하는 꿈에 한껏 부풀어있다.

문의: 사(칼림바코리아) 010-8915-5728

전문가 기고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모든 부부들이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



박성덕 소장
(연리지가족부부
연구소)

언젠가 60대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다. 남편의 외도 문제로 8년을 싸운 부부였다. 3개월에 걸쳐 매주 상담을 진행한 결과 감사하게도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남편이 내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나름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해줬던 내용은 상담하면서 들은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는 연합과 회복의 관점보다 타락과 파괴의 관점으로 부부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가정은 부부의 연합을 통해 얼마든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가정에서 연합과 사랑이 실종되는 바람에 협소한 기준에 갇혀 가정을 바운 것이다.

“잡은 물고기에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 “내가 짝을 잘못 만났다”, “모든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다”,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노력해봐야 안 되니까 더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부부 갈등을 풀어갈 때 막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어떤 부부든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부부라는 관계 속에 아주 강한 회복력을 주셨다. 우리가 회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욱 연합하기에 힘쓰며 다가가면 부부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의 차이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내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느낀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왜 남자와 여자도, 남편과 아내도 아닌 ‘남자’와 ‘아내’라고 표현하셨을까? 태초부터 남자는 시작 자체가 남자였고, 여자는 아내로 시작됐다. 이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의미다. 남자는 혼자 있는 상태에서 창조됐지만, 여자는 관계 속에서 창조됐다. 이는 부부 관계, 남녀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달라도 너무 다른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남자에게 에덴동산을 지키고, 땅

을 경작하고, 이름을 짓는 등 ‘일’의 속성을 가진 것들을 그 역할로 주셨다. 그래서 남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반면 여자에게는 관계성이 필요한 부분을 그 역할로 주셨다. 일에서뿐만 아니라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서 여자가 가진 관계성이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사용된다.

부부의 대화를 살펴보자. 아내는 남편에게 “왜 나랑 결혼했어? 왜 나랑 살아?”와 같이 관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이때 대부분의 남편은 “나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와 같이 일에 대한 대답을 한다. 욕구에 있어도 남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 아내는 사랑받고 공감받는

대화에 대해서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남편은 대화가 갈등을 심화한다고 생각해서 자주 피하려 한다. 그런데 아내는 대화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이렇게나 다른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만나는 것은 사실 커다란 축복이다. 왜일까?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한 사람이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앞에서 공감해주는 것과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누구도 두 가지 모두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 이렇게 다르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부부로 연합함으로써 각각이 가진 좋은 속성을 모두 얻을 수

시작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부싸움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연합해 달라는 신호인 셈이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회피적인 태도를 취한다. 정서중심 부부치료 모델을 개발한 수잔 존슨은 이 현상을 ‘몰두형 부인, 회피형 남편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였다. 아내들은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줄 때 숨을 쉴 수 없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말한다. 남편들은 “갈등의 자리에 있으면 숨이 막혀서 밖으로 나가버리게 된다”고 한다. 이들의 행동은 다르지만, 속마음은 자신을 알아달라고 외치고 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질문이고 연합해 달라는 신호인 것이다.

갈등 상황에서 부부는 부정적인 대화 패턴에 갇히게 된다.

첫째, 서로를 공격하는 ‘공격-공격형’이다. 부부가 서로 나쁜 사람 찾기를 하듯이 상대방의 나쁜 행동 목록을 제시하면서 공격한다.

둘째, ‘공격-회피형’이다. 한 사람이 공격하고, 한 사람은 회피하는 방식이다. 둘 중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항의하는 형태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셋째, ‘회피-회피형’이다. 서로 싸우다가 ‘더이상 내 마음을 몰라줄거야’라고 단념한 채 서로에게 냉담한 모습을 보이면서 쇼윈도 부부처럼 살아간다.

이 세 가지 대화방식 중에서 어느 부부가 가장 힘들까? 세 부부 모두 고통스럽다. 사랑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화의 패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거나 일방적으로 항의하거나 서로에게 냉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면 상대방이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목소리가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다가가는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부부 상담을 할 때 가장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 2:25).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은 부부 사이에서는 한쪽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벌거벗은 채로 다가가면 충분히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부부 관계에는 회복의 힘이 있다. 진심으로 그 아픔에 다가가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부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아마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이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 아닐까. 하나님은 연합의 관점에서 부부를 창조하셨다.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라고 물을 때 많은 남편들이 “나 열심히 살고 있잖아”라고 대답한다. 자신의 일을 존중해달라는 대답이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이 창조적 차이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은 일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지만, 아내는 일의 해결이 아닌 관계에 더욱 집중한다. 대부분의 남편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뭘 하면 되는데?”라고 말한다. 그런데 아내는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야?”라고 질문한다.

갈등 앞에서 취하는 행동도 마찬가지다. 남편은 본래 혼자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자꾸만 동굴로 들어가려는 속성이 있는데 아내는 관계 안에서 갈등을 풀어가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아내는 “나에게 다가와줘”라고 말한다. 그런데 남편은 “나 좀 내버려둬”라고 말한다.

애착유형에서도 차이가 있다. 남편은 회피형 애착유형을 많이 가지는데 아내는 몰두형 애착유형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내는 “제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고, 남편은 “그만 좀 해”라고 말한다.

있게 된다.

부부 불화의 진짜 원인

부부 불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흔히 성격 차이, 고부 갈등, 장서 갈등, 경제 관념 차이,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등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부부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다. 흔히 부부싸움을 ‘칼로 물 베기’에 비유한다. 부부가 서로 싸우는 것을 칼로 물을 베는 일에 비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부부가 서로 충분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야 가능하다. 이런 부부는 물이 칼에 잘리지 않듯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

신경학자 자크 팬크셉이 ‘근원적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간에게 소중한 사람과 연합에 실패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뇌 신경 회로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때 경험하는 것으로 단절, 버려짐, 거절, 거부, 무능함, 부적절함, 실패감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두려움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한다. 싸우거나 혹은 도망간다. 즉 부부 갈등은 배우자가 힘들 때 다가가서 연합되지 않으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서운한 게 많습니다. 교회 일을 대기를 바라고 섬기지 않았습니 다. 순장, 바이블아카데미, 성경필사, 통독, 새벽기도 등도 성실히 하려고 노력했 고요. 기복신앙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 상황이 썩쓸합니다. 나이는 많고, 결혼은 못했 고, 직장도 불안정하고, 돈도 없습니 다. 초라한 제 모습 때문에 친구 관계도 놓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 다. 저 신양생활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수많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내게 ‘형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섬김은 있는데 현실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생기는 좌절감과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으로 나타나는 성도님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목적지를 보여주 시지 않은 채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기근이었다(창 12:10). 설상가상 그들이 도착한 땅은 가족들 모두가 살 수 없는 좁은 땅(창 13:6)이었다. 왕 들은 아름다운 아내 사리를 빼앗아 가려고 했 고, 사라의 태는 닫혀서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다.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창 17:1~2).

25년 전과 같은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의심할 정도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25년 동안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은 진작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

한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절망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였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더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며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장난을 치는 거라고 웃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하나님께 가시 돌진 말을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다음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것

이 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다. 때와 시(時)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잠 4:23).

지금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다. 때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그 마음을 삼키려고 찾아올 것이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다. 하나님의 현실을 묵도하게 될 것을 믿으면 우리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불안정한 직장도, 결혼하지 못한 상황도, 초라한 내 모습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때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잘 지키고, 약속의 때를 기다리기를 기도한다.



배행삼 목사
(하늘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커피잔과 잔받침

최근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목사님의 자녀들은 이미 결혼했고, 지난해에 할아버지가 되었다. 목사님은 평소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사역과 가정의 균형을 이뤄야 하고, 가정은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의 중추라고 말씀하셨다. 그 목사님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결혼한 부부들에게 강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잠시 생각하시더니 카페 테이블 위에 있는 예쁜 커피잔과 잔받침을 보면서 설명하셨다.

“여기에 있는 커피잔과 잔받침은 서로 고유한 모습과 느낌이 있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서로의 개성과 색깔이 없어지는 것이 결혼의 하나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커피잔과 잔받침의 조화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할 수겠네요. 서로의 개성과 고유함을 유지하면서 부부가 진밀함을 누리고 하나 됨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더 해주셨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도 갈등이 심했을 때가 있었다. 아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사모님이 목사님께 정식으로 부탁했다. 결혼생활에서 자신은 갈아 없어지고, 가족과 남편에게 맞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강요를 하지 말라는 부탁이었다. 그 목사님은 당황스럽고 힘들었

지만 아내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부부가 둘이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서로의 고유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예비부부가 결혼에 관한 조언을 구하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함께와 따로’라고 하셨다. 자신의 고유함과 개성을 억누르지 말고 살아가라고 조언한다고 하셨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사모님이 필요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은 자신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모님이 “왜 나를 방치해요?”, “왜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사모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자기실현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부부는 나와 다른 의견과 욕구가 있더라도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관심 가져주는 관계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은 ‘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다. 삶의 연륜이 생기면서 ‘공동체를 포함한 나’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분된 나’에 대한 인식을 시작한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결혼 관계에

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어떤 중년 남편이 “아내가 예전에는 순응적이었는데 요즘은 자기주장을 자주해서 힘들다”고 푸념하는 것을 들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배우자가 자기주장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러나 아내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남편은 아내의 자기주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익숙했던 아내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서 남편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내가 순응적으로 남편을 배려해 주었다면 이제는 남편이 아내의 소망을 들어줄 차례다. 아내의 성장하고자 하는 바람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 한다. 자기실현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는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 싶은 소망이 동반된다. 가정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배우자의 자기실현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빅터 프랭클(V. Frankl)은 인간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이해했다. 인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루하루 살아갈 의미만 발견할 수 있다면 동력을 갖게 된다. 의미를 찾고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자

기실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메슬로우(A. Maslow)도 인간에게는 자기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했다. 인간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고유함을 발휘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살후 1:3).

커피잔과 잔받침이 서로의 개성을 잃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자신과 배우자도 각자의 고유함과 개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실현해 나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줘야 한다. 자신과 배우자가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더욱 유익하다.

적용: 나의 솔직한 감정, 은사, 기술, 능력, 성향 등과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쁘고 의미가 생기는지 배우자와 함께 나누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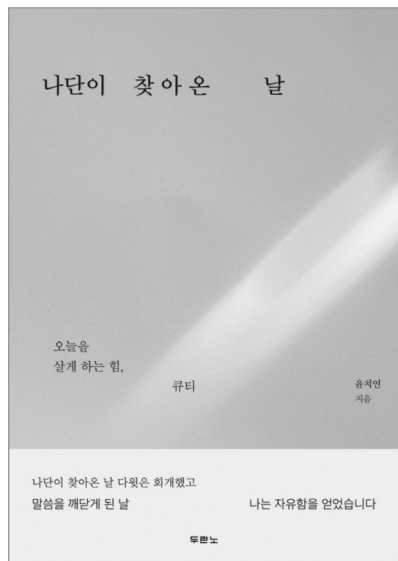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구속사적 큐티와 원독자의 관점



《나단이 찾아온 날》
윤치연 저 | 두란노 | 12,000원

온누리교회에서 큐티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새벽 예배에서 큐티 본문을 다루고, 순 예배에서도 큐티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큐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공동체가 방학하면 큐티도 방학하는 성도가 많다. 그래서 큐티에 발전이 없다. 큐티하기 전과 후의 변화도 없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 책의 독자들

은 큐티의 유익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삶에 생생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큐티를 의무로만 하던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내 말이 권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조차 내 말이 자녀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주는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성경을 날마다 자세히 읽고 묵상했다. 그랬더니 성경 안에 큰 즐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묵상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역사가 다른 나라 역사와 다른 이유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른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의 것과 다른 이유도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이다. 왜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셨는지, 왜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사역을 하게 하셨는지 그 답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다.

큐티를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구속사적인 큐티를 할 때 비로소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 내 인생에 찾아온 사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이 해석되고, 관계가 해석되고, 삶이 해석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가 큐티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이다.

큐티사역을 하면서 큐티 소그룹 심방을 다녀보면 성도들이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갈등의 연속이고 매 순간 선택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자녀가 헤멜 때 같이 헤멜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큐티 한다고 성경을 펴고 앉았지만 나 자신을 본문 삼아 묵상하게 된다. 자기애에 빠지고, 자기연민에 빠지고, 자만심에 빠지고, 더욱 이기적으로 되고, 스스로 합리화시킨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이유다. 또 큐티하는 시간에 사람을 본문 삼아 묵상하기도 한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느라 자기 자신에 대해 보지 못한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막상 성경을 읽을 때 삶과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끼는 이유가

있다. 내가 원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나를 위해 쓰인 책이 아니다. 원독자의 배경과 상황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변화를 받는다. 나단이 찾아온 날, 그 장면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지만, 다윗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원독자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인다. 그들의 삶이 다가오면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들의 결단에 이끌려 내 삶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진짜 이유는 성경 안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단이 찾아오듯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알지 못했던 주님과 나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란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성도들이 성경을 펼 때마다 나단이 찾아오는 날을 기대하기를 바란다.



윤치연 목사
(양재 여성사역)

두란노 신간

“하루라도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다”



《아바의 팔베개》
구인유 저 | 두란노 | 14,000원

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영적으로도 약해지면서 깊은 우울로 가는 성도들이 많다. 저자는 우울증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고 선포한다.

여러 걱정과 불안, 우울로 인해 잠 못 드는 밤, 하나님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부디 단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울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선물 받기를 소망한다.

“하루라도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다.”

12년 동안 우울증과 씨웠던 저자의 간절한 소망이다. 안 해본 노력이 없었다. 약물치료, 심리치료 등 갖은 방법을 다 써봐도 우울증 재발을 반복했다. 저자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구했다.

“하나님,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보통 사람처럼 사는 날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들이 누리는 평안을 제게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마침내 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저자의 깊은 우울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우울증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법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책 《아바의 팔베개》에 그대로 담았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영적으로도 약해지면서 깊은 우울로 가는 성도들이 많다. 저자는 우울증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고 선포한다.

여러 걱정과 불안, 우울로 인해 잠 못 드는 밤, 하나님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부디 단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울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선물 받기를 소망한다.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미얀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가 다시 미얀마 양곤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16살에 브라운대학에 입학하고 3년 만에 졸업한 천재였다.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회자가 되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아도니람 저드슨은 선교사의 길을 택하고 인도로 향했다. 내심 미얀마 선교를 생각하고 있던 아도니람 저드슨은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를 만나 조언을 듣는다.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아들 펠릭스 캐리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다른 선교지를 찾을 것을 권유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윌리엄 캐리의 조언을

19세기 미얀마는 완전한 복음의 불모지였다. 1807년 펠릭스 캐리 선교사가 미얀마를 찾았지만 정부의 압박으로 5년 만에 떠났다. 그 이듬해인 1813년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

따라 말레이시아 페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인에 대한 동인도 회사의 압박을 견뎌 급히 인도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장 탈 수 있던 배편으로 인도를 떠났는데 그 배의 행선지가 미얀마였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미얀마 양곤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미얀마에서 전도, 성경 번역, 인쇄, 어린이 사역에 집중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6년 만에 첫 열매가 맺혔다. 사랑방같은 원두막 ‘짜앗’을 만들어서 미얀마 사람들과 교제했는데 마웅나우라는 청년이 세례를 받았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1850년까지 37년 동안 미얀마어 성경 출판, 영어-미얀마어 사전 출판, 학교, 병원 건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얀마인들을 섬겼다. 3개월 동안 바다에서 조난하고, 병으로 두 아내와 두 딸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아도니람 저드슨의 헌신으로 미얀마에 전해진 복음이 지금까지 살아 숨 쉬고 있다. 미얀마의 기독교 인구는 2%에 불과하지만, 그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군부 쿠데타에 맞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있다.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일대일제자양육 수료자 간증

내가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한 시기는 코로나19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일대일제자양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였다. 다행히 좋은 양육자님과 연결됐다.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 습관적인 예배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한 마음이 가득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닥이었다. 온라인 영상예배와 답답하고 무기력한 현실에서 일대일제자양육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자 교육이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90일의 기적 성경일독'도 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병행했더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내면의 불안과 초조함을 진정 시키기에 충분했다.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던 시기에 일대일제자양육은 나에게 금과 같은 시간이나 진배없었다. 특히 양육자님의 기도와 경청이 큰 힘이 되었다. 힘든 일을 양육자님께 토로하면 잘 들어주시고 기도해주셨노라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다. 양육자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다.



장지희 자매(브릿지33+공동체)가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하고 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시험을 이기는 삶' 주제를 공부할 때였다. 내 믿음의 문제는 시험에 깊이 빠져서 낙망하고 넘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나는 마귀에 속아서 정체성을 잃고 은혜가 메말랐었다. 그 모습을 발견하고 통곡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시험에 빠지는 부분은 과거 죄악과 후회들로 인해 나에게 화가 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었다. 나는 '시험을 이기는 삶'을 공부하면서 정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다. 나는 늘 친오빠와 비교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나게 느껴졌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등 감싼 터널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알려주셨다. 그동안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농락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마귀의 시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내가 드디어 탈출하게 되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시험을 이겨나가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위로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기도도 편히 하게 되었다.

먼 거리이고, 코로나19라는 제약된 상황에서도 매주 나를 만나러 와주시는 양육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육자님이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구나'라고 느낄 만큼 큰 힘이 되었다.

나도 양육자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로 거듭나고 싶다. 정육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딤후 2:22)이 되고 싶다.

/ 장지희 자매(브릿지33+공동체)



코로나19,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남수단 캐세리 마을'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담하게 이기기를, 강하게 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세심하게 헤아리시고 배려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는 지난달 한국에 들어왔다. 자가격리를 잘 마치고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건강하게 준비되어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현지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지역 봉쇄는 흐지부지 끝났고 환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고 있다. 물가가 100배 이상이 올랐는데 모든 월급이 2013년 기준이라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지경이다.

BEE Korea 성경연장교육 세미나가 코로나19로 9월로 미뤄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공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공회와 전략적인 현지화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 성공회 대주교님이 BEE Korea 성경연장교육 세미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자인 캐세리 마을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마

별이라는 이름처럼 반짝반짝 빛났으면



캐세리 마을 청소년들이 수련회에서 꿈과 비전을 키웠다.

을 주민들과 지역 지도자들이 모임을 하고, 마을 개발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목소리를 들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비전이 나왔다. 주민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직업학교, 병원, 농장, 도로, 은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라기는 캐세리 마을

에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져서 별이라는 이름처럼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다. 남수단의 모델이 되는 마을이 되기를 소망한다.

마을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와 위생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캐세리 마을 10대 청소년 80명이 참석했다. 호응이 너무 좋아서 다음 수련회를 약속했다. 알콜중독자인 도미니도 수련회

에 참석했고 주일예배도 드렸다. 도미니가 하루빨리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멋진 아들로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던 임시 초등학교 건축을 시작했고, 드디어 캐세리 마을에도 보건소가 생겼다. 건축업자가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것까지 신경 쓰고, 보건부가 해줘야 할 일을 부지런히 챙기느라 쉴 틈이 없었다. 아플 새도 없이 뛰어다녔다.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보건소가 오픈했다. 남수단 방송과 신문에도 보건소 건축 소식이 실렸다. 주 정부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간병인을 앓고 있는 베틀을 돕는 일이 쉽지 않았다. 혈액을 구하는 일이 아주 급했다. 이번에도 주님의 은혜로 주바 대학교 의대생을 통해서 수혈을 받을 수 있었다. 위급한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이전처럼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서 걱정이다. 달리 방법이 없어서 퇴원했는데 교회에도 오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고 있다. 복수가 가득 찬 베틀을 위해 기도하고 떠나왔다. 베틀이 기도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해 달라고 했다. / 정은희 선교사(남수단)



“온라인 아웃리치 기대가 큼니다”

부천 ‘선교중보기도대회 시온의 영광’ 개최 남양주 6월 29일 온라인 아웃리치 발대식

부천 온누리교회가 지난 12일 ‘선교중보기도대회 시온의 영광’을 개최했다. ‘선교중보기도대회 시온의 영광’에는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 60여 명과 선교사 24명이 참석했다. 윤길중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선교사 소개와 중보기도 등이 이어졌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선교중보기

도대회 시온의 영광’을 시작으로 여름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공동체 종강예배에 선교사를 초청하는 온라인 아웃리치를 실시한다.

이성수 집사(부천 온누리교회)는 “온라인으로 선교사님과 소통하고 중보기도하고 후원하는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는 6월 29일 오후 8시 줌(Zoom)으로 아웃리치 발대식을 연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10개국 선교사 11가정이 참석할 기도할 예정이다.

김성수 팀장(남양주 온누리교회)은 “온라인 아웃리치에 참가한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선교 열정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중보기도 3기’ 세미나가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8주 동안 열린다. 박춘광 목사(신동탄지구총교회 담임)가 ‘성경적인 중보기도의 이해’, ‘중보기도의 놀라운 특권’, ‘중보기도의 실제적 사역 영역’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회비는 15만 원이다. 8월 5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63

예배, 소그룹, 심방 등 많은 사역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한국 교회를 위한 세미나도 열린다. ‘교회를 돕는 온라인 사역’ 세미나가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사역의 방향성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배우는 과정이다.

케빈 리 목사(새들백교회 온라인 사역 담당)가 온라인 예배와 소그룹, 교회 웹사이트 구성방법, 소셜미디어 활용법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온라인 사역 방법을 알려준다.

회비는 4만 원이다. 8월 9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078-3265

NGO 더멋진세상 코로나19 긴급구호

필리핀, 미얀마 주민들에게 식량 및 위생용품 제공

NGO 더멋진세상 코로나19 긴급구호가 한창이다. 지난 6월 10일 NGO 더멋진세상이 필리핀 파나이 섬 아펜타바 마을 일대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를 실시했다.

130여 가정에 식량(쌀, 식용유, 라면, 건어물 등) 및 위생용품(마스크,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비누)을

전달했다. 25개 학교와 교회에는 체온계와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원했다.

지난 5월 24일에는 미얀마 북부 그두족마을 800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구호를 실시했다.

/ 김영선 기자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과정 모집

7월 7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

일대일사역팀에서 21-2기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1-2기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과정은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 교육실습과 어린이 일대일 양육(12회)이 진행된다. 이 과정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조부모, 차세대 교사들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7월 7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4740-9749

어린이신문 작품 모집

차세대 글, 시, 그림 등 이메일 접수

온누리신문에서 어린이신문 지면에 들어갈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제목, 작품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

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낸 작품은 온누리신문 매월 마지막주에 실리는 어린이신문 코너에 게재된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관련 기사 2면>.

수교 60주년 기념로고 공모전

주한이스라엘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주한이스라엘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이 2022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기념로고 공모전’을 개최한다. 양국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역동적인 정신을 담은 기념로고(작품 소개, 인적사항 포함된 JPEG 파일)를 8월 13일까지 이메일(Israelkorea60yr@Seoul.mfa.gov.il)로 보내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31일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또는 이스라엘 국적자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우승작(1명) 한국-이스라엘 왕복항공권, 2등 삼성 갤럭시 탭 S7, 3등 삼성 갤럭시 탭 S6 Lite를 증정한다. 우승작은 2022년



주한이스라엘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의 수교 60주년 공식 로고로 활용된다.

문의:

Israelkorea60yr@Seoul.mfa.gov.il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팀 모집

7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

2021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팀을 모집한다. ‘어!벤처스’는 국내외 사회 이슈를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청년을 위한 벤처대회다.

‘어!벤처스’에 최종 선발된 12개 팀은 비즈니스 분야별 전문 멘토의 밀착 멘토링을 받는다. 상금 1,800만 원, 후속 멘토링,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장학금 등도 제공된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방

법은 7월 15일(목)까지 어벤처스 네이버 공식블로그(blog.naver.com/aventure2016)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이다. 비영리법인도 참가할 수 있다. 팀의 핵심 멤버 한 명은 반드시 기독교인이여야 한다. 6월 29일(화) 오후 7시에는 사전설명회가 온라인 생중계된다.

문의: 010-4081-4682

‘효율적인 비대면 사역을 위한 원데이 특강’

7월 17일 오후 1시 온라인(Zoom)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이다. 학교 수업도, 회사 업무와 회의도, 예배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정사역본부 소속 아름다운 동행 사역팀에서 비대면 사역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효율적인 비대면 사역을 위한 원데이 특강’을 7월 17일(토) 오후 1시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

비대면 교육 전문가 박재현 소장을 초빙해서 ‘Zoom 운영의 효율적 방법’, ‘비대면 디지털 도구 활용과 장점’ 등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줌(Zoom) 운영에 관심 있는 스태프,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회비 1만 원을 입금(하나 573-910009-62304)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문의: 010-9041-5538

6월 세례자

■서빙고	정하은 191112 허민정 751127 진주원 201025 박주연 961109
김정민 800702 정민규 권수연 유아	진우승 이지혜
전은주 600709 조노아 200816 강서현 190524 최우혁 200326 ■SNS	
최영아 851224 조강훈 홍경숙 강정모 권지현 최홍구 최기쁨 장민경 920623	
유아	조승현 180909 김영준 190326 한 봄 190513 입교
강예나 200820 조원준 이진경 김성흠 박미진 한종대 류은석 문영선 890612	
강승훈 최은정 최세현 191114 김이준 190601 홍례아 190627 천하은 930923	
강순식 박선영 최지안 200326 김지유 180114 홍승현 송지유 유아	
김연우 200824 최성환 이수빈 김정오 차경진 <대창> 오현택 201125	
김민수 김자연 백클레어윤서 ■하늘 오준석 임슬아	
김윤우 190320 ■양재 200626 안하민 020914 ■W	
김민수 김자연 김이정 710402 백인기 남은진 조정우 970811 김진희 950817	
류서하 200121 김지우 970420 손주호 191006 입교 유아	
류시운 박찬비 김홍범 950106 손세일 최승연 김은혜 991102 정이안 210111	
박선울 190204 박준형 760509 안시은 190820 박준원 000722 정정일 김민숙	
박성은 송미나 송지유 850529 안재한 김지혜 ■허브	
이하엘 200109 안유진 640928 이지안 200815 김재경 011212	
이유영 김예원 이윤정 730326 이상기 이소진	

■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이봉의 장로(양천공동체)

간증문을 쓰려고 서재에 앉았더니 젊은 시절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대학생 때 CCC(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슬로건을 늘 가슴에 품고, 학우들에게 사영리로 전도했던 시절이 떠오른다. 여름방학 때 전국대학생수련회가 끝나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인천에서 개업을 하고, CCC를 떠나 교회에서 공동체와 사역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전도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신앙생활에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에 전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떠나지 않았다. 언젠가는 온누리전도학교에서 복음 전도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장경문 장로님께 전화가 와서 온누리전도학교에 등록했다.

온누리전도학교는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등록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마음과 왜 이제야 등록했더라는 아쉬운 마음이 교차했다. 전도하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고,

되찾은 전도자의 삶

그만큼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전도와 멀어졌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온누리전도학교가 전도자의 삶을 되찾아줬다.

양지혜 조장님의 세심한 배려로 매주 과정을 이어갔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준비된 교재와 학습 과정에 감탄했다. 특히 삶과 전도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장경문 장로님의 모습에 놀라고 감동했다. 전도대상자의 접촉점을 찾아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전도 방법을 배우고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전도 방법이 좋다는 사실은 우리 병원 직원 두 명에게 실습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직원들이 “원장님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설명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 다녀보도록 할게요.”라고 했다.

성도들이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온누리전도학교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귀한 학습교재와 교육과정을 연구 및 개발하고 발전시키느라 수고하신 장경문 장로님과 전도학교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사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누리전도학교를 통해 나를 비롯한 이 나라와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탁월한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끼에우, 프영 선교사(라오스)

생명의 학교(The School of Life) 아이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빼내 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출 6:7).

나의 믿음도 아주 세심하게 눈높이를 낮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아 보이든지 커 보이든지, 기도의 응답이든지 거절이든지, 평탄하든지 고난에 있든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만나주시고, 그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많은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가정 교회의 작은 공간에서 방과후학교 형태로 시작한 ‘One Class One School’ 사역이 잘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학교(The School of Life)라는 이름으로 영어, 축구교실, 성경공부 시간을 더해가며 작은 학교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고아들을 비롯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생명의 학교에 출석하는 28명의 아이 중에서 7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혼 후에 버림받은 고아들입니다. 그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했다가 본 열악한 환경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숲에 비를 피할 천막을 치고, 그 아래 간이 침대를 놓고 생활하는 모습은 눈속에 가까웠습니다. 생계를 위해 부모님이 먼 도시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조부모나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아이들 역시 어려운 형편에 온전한 돌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과 가정의 예수님을 만나서 참 소망과 사랑을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축구교실을 통해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난 4월 그 지역 대표 학부모를 만나서 아이들을 위한 영어교실을 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환영했고, 대표 학부모는 흔쾌히 자신의 집을 영어교실을 위한 장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중순으로 연기된 사역이 차질이 없도록, ‘One Class One School’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시고.

■ 러브소나타 ‘기도세미나’ 간증



/ 다카하시 목사(사카타그리스도교회)

지난 6월 10일 러브소나타 서울본부에서 일본 동경과 야마가타 지역 실행위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도세미나’를 개최했다. 전 주중대사였던 김하중 장로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셨다.

야마가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러브소나타가 연기된 지역이다. 야마가타 실행위원회와 목회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일 것이다. 바로 그 기도를 위한 시간이 이번 기도세미나였다. 성경 말씀을 설명해주는 것도 좋고 필요하다. 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고, 왜 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알려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

나는 재작년 구마모토에서 있었던 기도세미나를 청강한 적이 있다. 이번 기도세미나가 두 번째 참석이다. 그때 세미나가 정말 좋았다. 그래서 야마가타에서 기도세미나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감이 있었다. 아내는 이번 기도세미나가 처음이었다. 아내는 김하중 장로님의 책을 읽고 “모범이 되는 기도의 사람이네요! 너무 재미있어서 책 읽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도의 사람

기도세미나가 기대된다며 나보다 들뜬 모습을 보였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기도세미나에 장로 후보자를 포함해서 4명이 참가했다. 기도세미나의 은혜는 그들에게도 가득했다. 한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감동했다”고 했고, 또 한 분은 “김하중 장로님은 자신이 목표로 삼을 장로상”이라고 고백했다. 김하중 장로님이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이야기할 때 감명 깊었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럽지 않은 성령의 힘을 받으라고 뜨겁게 호소하는 권면을 들으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도세미나에 참가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김하중 장로님이 외친 뜨거운 말씀과 가르침이 새겨졌을 것이다.

일본과 야마가타에 김하중 장로님 같은 기도의 사람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야마가타 교회와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를 통해 기도의 사람이 양육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사랑의 기도를 알려주신 김하중 장로님과 러브소나타 본부, 서울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어린이 일대일 간증



/ 안광호 성도(가정사역공동체)

첫째 아들과의 어린이 일대일 양육이 지난해 8월 말 끝났다. 코로나19로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다가 어린이 일대일을 떠올렸다. 첫째와의 어린이 일대일 양육은 설렘도 기대도 어설픈 모습도 많았다.

늘 형이 주일이면 아빠와 집 앞 카페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이 부러웠던 둘째 희민이는 자기는 언제 어린이 일대일을 시작하는지 묻곤 했다. 첫째의 양육이 끝나갈 즈음 둘째도 카페에 데려가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했다. 희민이는 카페에서 맛있는 음료를 시키고, 아빠와 이야기하는 것이 마냥 좋았는지 재잘거리며 데이트를 이어갔다.

드디어 희민이와의 어린이 일대일이 시작됐다. 희민이는 굉장한 집중과 열정을 보이며 참여했다.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와 말씀 암송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째와 둘째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대화하는 방식, 참여하는 모습,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다르다. 아이와 데이트를 하면서 아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고, 감정과 생각을

행복했던 그 시간

나누면서 더 많이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주차에는 궁금한 것이 많았는지 이것저것 질문하느라 2시간 30분이 훌쩍 뛰어넘을 때가 있었다. 또 어떤 주차에는 조금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잘 참여해주었다. 조금만 양육이 늦어져도 ‘어린이 일대일 양육 안 해요?’라고 먼저 물어보며 느슨해진 나의 마음을 추스르게도 했다. 키 그림을 설명하는 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 아이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겠구나,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생각하며 감사한 적도 있다.

아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린이 일대일 양육이 끝나면 자칭 ‘심화과정’을 하자고 했다. 뜻밖에도 희민이가 하겠다고 대답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교재로 아들과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지속하고자 한다. 소중한 보물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도 아빠와 말씀을 나눴던 그 따뜻한 평생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을까.

장로칼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허복만 장로
(온누리교회
부천캠퍼스)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한다. 땅을 얼마나 깊게 파고 파일을 얼마나 튼튼하게 박았느냐에 따라 건물의 높이와 질이 결정된다.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라는 기초 양육과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선교 명령을 끊임없이 수행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봄 온누리교회 부천캠퍼스 담당목사님께서 줌(Zoom)을 이용한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비대면 강의의 해달라고 부탁하셨다. 비대면 양육 경험이 전혀 없었던 나는 “일대일제자양육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 비대면으로는 양육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6개월이 지나고 가을학기가 왔다. 다시 목사님이 비대면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강의를 부탁하셨다. 교회에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까지 준비해 주셨다. 더는 거절할 명분이 없어졌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일대일사역팀과 1주일에 2과목씩 동영상 강의를 찍으면서 비대면 양육자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많은 걱정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히려 대면으로 양육할 때보다 집중이 잘되고, 나눔이 깊고 풍성해졌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셨다. 온누리교회 부천캠퍼스에서 진행한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에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등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가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지경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어디에서나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지경을 넓히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올해 봄 온누리교회 부천캠퍼스에서 새롭게 시작된 일대일 양육자반과 C국, T국, S국의 한인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1회용으로 준비했던 강의 동영상들을 편집하고,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과정을 팀 사역으로 발전시켜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준비하면 준비된 사역자들에게 사역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로나19로 일대일제자양육 대외사역도 전부 중단됐었다. 그런데 부평의 한 교회의 요청으로 비대면 양육을 받은 양육자 41명이 비대면 일대일 동반자 양육을 시작했다.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70대 후반의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도 줌(Zoom)을 사용해서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지난해와 올해 몇 차례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과 동반자 대외사역을 하면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사역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고, 걸림돌이 디딤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파해 나갈 때 성령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경험했다. 일대일제자양육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민족과 열방을 깨우시기 위해 온누리교회에 준비해 놓으신 귀중한 보배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편만(遍滿)하기를 소원한다.

권사칼럼

벽이 길이 된다



박인숙 권사
(신원산공동체)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공원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유리출입문이 있다. 어느 날 아침 공원으로 나가려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비둘기가 유리출입문을 돌파했다. ‘푸드득’ 큰 소음을 내며 유리문에 몸을 세게 부딪치더니 가까운 소나무로 겨우 날아가 쫓겨도 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보면서 나는 7년 전 일이 생각났다. 발레학원을 다니던 6살 손녀를 마중 나간 남편이 아파트 현관 유리문이 평소처럼 열려 있는 줄 알고 급히 나가다가 이마를 다쳐서 꽤 많은 적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문이라도 열려있지 않으면 벽이다. 이 사건을 목격하고 보니 문득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 10:19-20).

대제사장만이 속죄를 위해 일 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 죽음 덕분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예수님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드림으로써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

공원을 건다가 또래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나와 몇 번 말을 해보고는 마음이 통한다며 친구를 하자고 했다. 자신은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자녀들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그녀는 모든게 재미없고 허무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인생이 외롭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신호인 것 같아요”라고 말을 건넸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할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그녀에게 나는 교회에 함께 가보자고 권면했다. 그녀는 흔쾌히 수락하면서 자기 집에 초대도 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무르익은 사람인 줄 알고 기뻐했다. 하지만 그녀는 절에 부모님 영정을 모시고 있고 종손이라 제사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여가기가 어렵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마음에 유리벽이 있는 것을 알았다. 비둘기가 유리출입문에 충돌해서 그 흔적이 유리문에 그대로 있는 현장을 가리키며 그녀에게 말했다.

“비둘기가 창공을 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친구도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사 문제 등의 고민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여전히 어렵다. “알아야 믿지?”라고 핑계를 대면서 이따금 “인숙씨, 뭐해요?”라고 전화를 자주 한다. 주님께서 내게 그녀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깨뜨리라는 마음을 주셨다. 며칠 전 담근 취나물 장아찌와 성경책을 갖고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친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방법을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라고 운을 띄웠다. 그녀는 “인숙씨는 정말 예쁜 마음을 가졌네요. 한 번 들어볼게요”라고 화답했다. 나는 두란노서원에서 나온 <최고의 행복> 전도지로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들어봐서 기억한다면서 예수님을 순수히 영접했다. 당장 교회에 나가는 건 어렵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벽)을 단번에 허무셨다. 그녀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벽도 조금씩 금이 가고 있음을 느낀다. 성령님이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비추셔서 벽이 길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한다.

신앙에세이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지구 온난화 현상이 자연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남극 빙산이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을 상승시켰고, 그 여파로 물에 잠기게 될 국가나 도시들의 명단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아해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에 있는 키리바시와 투발루라는 작은 섬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다. 인도양의 관광지로 유명한 몰디브도 50년 이내에 완전히 물에 잠길지도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만 높이는 게 아니다. 어류들의 서식지도 옮겨 놓고 있다. 남쪽 바다에서 잡혀야 할 고기들이 북쪽에서 잡히고, 북쪽 바다에서 잡혀야 할 고기들이 남쪽에서 잡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육지에서도 바다처럼 과수(果樹)들의 서식지가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해주던 아마존의 무분별한 개발로 밀림이 제거되고 있는데, 이것은 원주민들을 노숙자로 만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속시킨다.

지구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는 바다대로, 땅은 땅대로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 어느 해변에는 조류를 타고 흘러온 쓰레기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한다. 아름다운 모래해변이 쓰레기장으로 바뀐 것이다.

베트남 어느 지방 해변에서도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는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

고 있다고 한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바다에서는 해류를 타고 흘러 다니다가 모인 쓰레기들이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수천~수만 km를 흘러 다니다가 한 곳에 몰려들면서 쓰레기 섬을 이루고 있다. 동해에 버려진 쓰레기 한 조각이 흘러 다니다가 태평양 어느 곳에서 쓰레기 섬을 이룰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해보았을까?

바닷속에서는 물고기들의 고통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버려진 폐그물에 걸려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고기들이 너무 많다.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여 삼켰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흘러 다녔던 플라스틱이 물의 힘에 의해 부서져 작은 가루로 변해(미세 플라스틱) 물과 함께 고기들의 호흡기로 들어가 내장에 쌓인다. 사람은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머금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다. 결국 사람이 버린 플라스틱을 사람이 먹고 있다.

땅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쌓인 쓰레기산이 늘어나고 있다. 부도난 쓰레기 처리 회사들이 남겨 놓고 간 쓰레기 산들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쓰레기의 수출 길이 막히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지자체 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고 있는 쓰레기들이 땅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바다와 땅이 인간들에게 SOS를 보내고 있다. 땅이 살려 달라고 소리치고, 바다가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 소리가 들려야 한다.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구 환경 보호 문제는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문제라는 심각성을 가져야만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세상에 가득 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에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타락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참된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물이 가득 차듯이, 물이 바다 덮음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의 방탕함에 대한 심판

네 번째 저주의 내용은 ‘바벨론의 방탕함에 대한 심판’입니다.

“와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네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네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네 영광을 가릴 것이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에게 행한 피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네가 사람의 죄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15~17절).

바벨론은 방탕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방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자신만 방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방탕하게 하고,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즐겼습니다. 자신만 방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방탕하게 하고, 수치에 처하게 하고, 그것을 즐기는 방탕함입니다. 비열한 방탕함입니다. 그들은 술만이 아니라 권력에 취해 이웃과 자연 세계에 무자비한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성

을 짓고 집을 짓기 위해 그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모두 베어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사람도 죽였습니다. 레바논의 숲을 황폐케 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다섯 번째 저주의 내용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며, 심판하십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것, 생명이 없는 것, 도움을 줄 수 없는 것, 거짓된 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 스스로 숭배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왜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역사 이래로 우상 숭배가 끊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에 우상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장 칼뱅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만일 섬김을 받아야 할, 예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을 배제하면 다른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배합니까?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보고, 큰 바위를 보고, 넓은 바다를 보고, 하늘과 태양과 달을 붙잡고 거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비는 것입니다. 우상에 도와달라고 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과학 기술 시대에도 첨단 과학 기술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돼지머리를 놓고 도움을 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인간이 추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존재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인간 스스로 느끼는 비참함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가운데 인간만이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다른 생물들도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불안과 염려 정도가 아닙니다. 비참함을 느낍니다. 인간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떨어지면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 비참함을 매우려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매워지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도 인간의 비참함을 메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20절).

‘잠잠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집니다.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박국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고, 여호와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바벨론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임한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주와 심판을 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잠잠해지는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

평택 스페셜 라이딩 참가자 후기



한형창 집사
(평택 온누리교회)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평택 스페셜 라이딩을 위해 모두 기대하고 기다릴 만한 귀한 선물과 간식을 지원해주신 신동식 목사님(평택캠퍼스 담당)과 평택 온누리교회 리더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특히 매일 늦은 시간까지 평택 스페셜 라이딩 준비모임을 가지면서 애써주신 스태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사실 나는 평택 스페셜 라이딩 행사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매일 평택 스페셜 라이딩을 떠올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가 되게 해달라는 생각뿐이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 같다. 평택 스페셜 라이딩 코스는 내리문화공원을 출발해서 평택국제대교를 거쳐 내리문화공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왕복 20km 구간이었다. 내리문화공원은 1.5km 지점에서 되돌아오는 3km 구간으로 정했다. 행사 일주일 전부터 매일 자전거를 타고 코스를 답사했다. 출발지와 쉼터 반환점, 천막 설치 위치 등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참석률을 염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택 스페셜 라이딩에 참가하는 것은 기독 어린이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세대와 새로운 시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거룩한 도전이기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기도했다.

행사 당일 오전 9시 내리문화공원에 천막이 세워졌다. ‘달려라! 풍당’이라고 적힌 포토존 현수막이 설치된 그럴듯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겠네요!’라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한곳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시작 기도와 출발을 알리는 메시지가 평택 스페셜 라이딩의 시작을 알렸다. 자전거는 4인 동시 출발, 걷기는 가족 단위로 각자의 자리에서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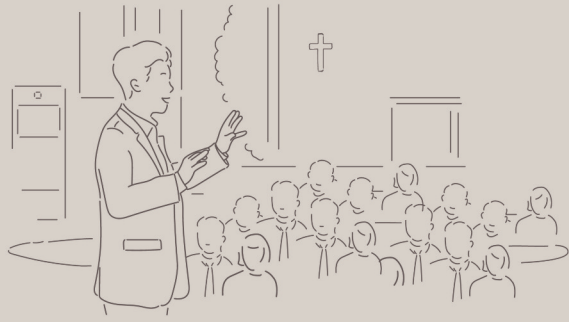
이날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건강하고 기독 OTT ‘풍당’의 키즈 콘텐츠가 다음 세대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즐겼다. 2019년 국내 아웃리치 이후 오랜만에 웃음소리와 박수소리를 들었다. 또한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태프와 어린이를 포함해서 평택 스

페셜 라이딩에 참가한 90여 명의 성도들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서 마음까지 건강해지기를 기도했다.

평택 스페셜 라이딩에는 평소 주일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던 성도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던 분들도 참석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던 분인데 가족들과 함께 참석한 사례도 있었다. 새가족들이 많이 참석해서 감사했다.

평택 스페셜 라이딩을 마치면서 하나 뒀을 확인한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다음세대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삶의 현장에서 힘차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우리 삶의 현상이 날마다 예배 현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CGNTV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평택 스페셜 라이딩 행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다.

“이곳이 천국이구나!”



“생존과 소명사이”

일과 사역을 병행하며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목사들의 고군분투 이야기



본방송 6월 27일(주일) 오후 3시 50분
재방송 6월 28일(월) 오전 11시

